

도시 거주자의 주생활 양식에 관한 연구

-거주자 제속성 및 주거 유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Housing Life-style of Urban residents

신 소 영 *

Shin, So You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housing life-style shown in the modern housing life by dwelling types and residents' attributes to suggest the basic information useful for the housing plan in the future. The results of this study was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interrelation between residents' attributes and housing life-style showed that the uneducated, the low income and the elderly were interested in utility. On the other hand, the educated, the upper income and the young generation were interested in decoration.

Secondly, those who had their own houses and never moved were interested in utility in terms of residents' attributes. Utility was showed high in all housing style in terms of before moving in house.

Thirdly, those who wanted move and stay both interested in decoration and utility in terms of will of resident. It was also shown that those who wanted to move big cities were interested in increasing property.

Fourthly, the housing life-style by dwelling types showed that it was possible to obtain six elements such as 'decoration', 'display', 'liking', 'utility', 'increase of property', and 'hierarchy order'. Based on the average by each type, it was shown that while a tendency toward utility was generally high, especially, the many-storied apartment was high for display.

* 정희원, 동부산전문대학 실내디자인과 강사

I. 서론

1. 연구 목적

주거는 대다수 사람들의 생활상이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투영되고 그 속에 담긴 생활뿐만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 낸 사회의 모습까지도 표현하는 언어이다. 또한 역으로 한 사회 속에 널리 퍼져 있는 주택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회를 지배하는 가치와 감정 및 사유의 체계까지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주거 건축을 통해 그 사회의 문화적 현상을 이해하기도 한다.

즉, 주거는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인 면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환경인 동시에 가족과 개인의 가장 기본적이고 인간적인 생활이 담겨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가족의 심리적, 신체적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가능한 가족과 개인의 요구에 맞아야 한다. 따라서 주거건축이란 단지 양적 공급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거주자의 욕구에 부합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거주자에게 있어서 적합한 주거란 거주자의 속성에 따른 주생활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보다 질적인 생활을 영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계층에 따라서 달라지는 생활양식을 인정하며 생활양식의 결정요소로 고려되는 행동 패턴은 수입, 교육, 직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사회 계층은 직업, 교육 수준과 함께 생활양식의 차이를 설명하는 가장 유력한 변인으로 흔히 사용된다. 또한 생활양식은 개인적 변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변인으로서 거주 의향이나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거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생활양식은 주택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활양식에도 영향을 주게 되므로 주생활 양식은 주택을 계획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최근 주생활 양식은 경제적 번영과 소비의 질적 수준이 상승하면서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거주자들의 전반적인 주거 수준도 크게 향상되었으며 그에 따라 住要求도 다양해졌다. 이러한 거주자들의 보다 나은 삶을 반영 할 수 있는 주공간을 계획하기 위해서 각 주거 유형별 주생활 양식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대 주거 생활에서 나타나는 주생활 양식을 거주자 속성 및 주거 유형별에 주목하여 분석함으로써 금후 주거 계획에 있어서 기초적 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거주지 유형별 거주자들의 주생활 양식을 조사해서 거주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자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주거 환경의 물리적 환경의 다양화를 전제로 일반 거주자들의 생활 실태와 주거 의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주생활 양식이 명확하게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구미시 형곡동을 중심으로 하고 거주지 유형별에 있어서는 극히 일반적 주거 유형으로 제기되는 단독 주택(양옥), 연립 주택, 저층아파트, 고층아파트를 대상으로 했다.

또한 조사 방법은 각 주거 유형에 있어서 비교적 대표성을 가진다고 생각되는 상거 4개의 주거 유형에 대해 다양한 주거 의식 표현이 가능한 세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행하였다. 조사 기간은 예비 조사(1995년 4월 13일~4월 26일) 및, 1차 조사(1995년 7월 18일~7월 29일)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표 1>은 조사 지구의 설문지 배포 및 회수율을 나타내고 있다.

분석은 SPSS PC+(Statistical Analysis System)를 이용하여 범주형 분석(χ^2 검증) 및 인자 분석(Factor Analysis) 등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표 1〉 조사지역의 설문지 배포 및 회수율

주거 유형	배포수	회수수	회수율(%)
단독주택	50	44	88
연립주택	60	47	78.3
저층아파트	70	69	98.5
고층아파트	70	55	78.5
총계	250	215	86

II. 이론적 고찰

1. 주생활 양식의 개념

주생활 양식의 개념을 살펴보기 전에 주생활의 개념을 살펴보면 주생활은 전체적인 생활상의 한 단면이며 단계적으로 가족생활로서 그 안에 개인의 주생활이 포함되며 전체적으로는 사회생활안에 포함되고 있다. 즉, 주생활은 인간생활의 일부분이며 생활전체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생활의 기본이라 할수 있다. 주생활은 주택을 떠나서는 성립될 수 없으며 주택과 밀접한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주생활 양식에 대한 개념 정의는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주택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일정한 생활 양상, 즉 생활의 유형을 말하며 주생활 면에서 나타나는 전통·습관화된 생활 행동의 상태를 말한다. 또한, 주생활 양식은 가족의 구성 조건, 사회적 계층, 지역적인 기후 풍토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또 시대적인 변천에 따라 항상 변화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주생활 양식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한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의 니시아마(西山卯三 1968:374~376)는 "주생활 양식은 인간이 주거 내에서 살아가는 양식으로 인간의 정신적인 측면인 주의식과 행위적인 측면인 주생활 형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전경배, 윤충렬(1989)은 주생활 양식을 "주택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일정한 생활 양상, 즉 생활 유형을 말하며 주생활 면에 나타나는 전통, 습관화된 생활 행

동의 상태"라고 정의 내리고 주생활 양식이 가족 구성, 사회 계층, 기후 풍토 조건 등에 따라 다르며 시대 변모에 따라 항상 변화 발전하게 되며 이러한 주생활 양식을 기거 양식(입식/좌식), 외부에 대한 개방성/폐쇄성, 보수성/혁신성, 실의 독립성/개방성, 기능적인 편리성/공간의 분위기 중요도 등의 조건과 관계된다고 말하고 있다. 최목화(1991)는 주거 생활 양식이란 주거 가치와 관련하여 실제 나타나는 행동 양식이며, 이러한 주거 생활 양식의 유형을 가구 사용, 공간 사용, 난방 방식, 현재 주거 생활 조건에 따라 재래식 기본 생활 유형, 재래식 가족 중심 생활 유형, 질총식 가족 중심 생활 유형, 현대식 사교, 여가 생활 유형으로 분류하여 현대 주거에서 나타나는 주거 생활 양식의 물질적 측면을 다루었다. 앞서 서술한 주생활 양식에 대한 여러 개념 정의들을 간단히 요약해 보면 주생활 양식을 세 개의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주거 의식이나 현재 주거 생활 조건과, 주생활에 대한 의식을 다룬 사회 심리적 측면과, 주생활 형식, 공간 사용, 가구 사용(입식/좌식/질총식), 공간 사용 방식(주생활 행위, 기거 양식) 등의 주생활 행위적인 측면, 그리고 가구 사용, 가구 배치, 꾸밈 형태 등의 물질적인 측면으로 나뉘어진다. 이와같이 주생활 양식은 어떤 측면에서 보는가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2. 선행연구

주생활 양식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영순은 주생활 양식의 개념을 주생활에 관한 개인의 행위, 흥미, 의견 등에 의해 구체화 되어지는 주생활 방식이라 정의하고 각각의 특성에 따라 정리 정돈형, 장식 추구형, 자기 표현형, 실용 추구형, 유행 추구형 등으로 분류하여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생활 양식은 거주자 특성인 아파트 평형, 가구

주의 연령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이들이 생활양식을 구분하는 중요한 변수가 됨을 밝히고 있다.

최목화(1991)는 주거 생활 양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주거 생활 양식의 유형을 그 관련 변인인 가구 사용, 공간 사용, 난방 방법, 현재 주거생활 조건에 따라 5개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제 1유형은 기본 생활 유형이며, 제 2유형은 재래식 가족 중심 생활 유형, 제 3유형은 절충식 가족 중심 생활 유형, 제 4유형은 현대식 기본 생활 유형, 제 5유형은 현대식 사교, 여가 생활 유형이다. 즉, 최목화는 이 연구 논문에서 주로 주생활의 행위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으며 현대 주거 생활에서 나타나는 주거 생활 양식의 경향을 파악하였다.

홍두승, 김미희(1988)는 사회 계층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주거 생활 양식의 차등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주생활 양식을 주택의 보유 여부 및 규모, 주택 설비와 주거 문화 그리고 거주 지역 등 세 개의 하위 영역으로 나누었고 신영숙(1991)은 주생활 양식을 개인이나 집단이 가지고 있는 태도, 가치 의식, 의견, 흥미, 관심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나타내어지는 행동과의 통합된 체계이며 개인의 활동, 흥미, 의견, 등에 의해 구체화 되어지는 생활 방식의 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고경필은 아파트 거주자들의 주거 가치와 주생활 양식의 요인을 분류하고 이러한 요인에 따른 주택 구매 행동을 파악하여 아파트 거주자들의 생활상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들 거주자들의 생활에 적합한 주거 공간 창조 및 다양화 되어가는 거주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집합 주거 설계에 도움을 주려 하고 있다. 여기서 주생활 양식을 주택을 포함하여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 주생활 양식을 개념적으로 또는 실증적으로 분류된 주행위 유형 또는 공간 사용 방식을 사용자 계층과 관련시킨 일본의 니시야마(西山卯三 1959)는 주생활의 형을 직업계층과 대응시켰으며 스즈키(鈴木成文 1975)는 White Color와 Blue

Color 간의 직업 계층적 차이에 따른 주요구를 분석한 연구를 통해 주생활 양식을 직업 계층과 관련지어 접근하고 있다.

그리고 서구의 경우, 주생활 양식의 이론적 배경인 공간 사용 방식을 중심으로 주생활 행위에 대한 유형 분류를 시도한 연구(Barker 1968)와 바커가 개발한 행위 유형을 실증 조사를 통해 수정한 연구(Betchel 1989)가 있다.

Ⅲ. 주생활 양식의 분석

1. 분석 방법

분석 방법은 인자 분석을 행하는 것에 의해 결과를 도출했다.

인자분석(Factor Analysis)이란 다수의 변수(평가 척도)를 이용해서 기술한 행동이나 제 현상을 그 배경에 숨어있는 공통의 인자를 찾아내는 것으로 복잡한 현상을 몇 개의 인자에 의해 설명하고자 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인자분석의 결과, 측정척도를 이용한 평가척도의 수보다 적은수의 변수이고 평가를 행하는 인자가 추출되면 평가구조의 감리, 감소화가 행해져 평가의 구조를 해명하기가 쉽다.

이러한 인자분석은 최초 심리학 분야에서 출발했지만, 현재는 전자계산기의 발달과 보급에 동반해서 심리학만이 아니고 사회학, 자연과학 분야에서도 유용한 분석방법으로 넓게 이용되고 있다.

인자분석의 여러 가지 수법중 주인자법은 다변량의 사이에 공통으로 보여지는 변동중에서 가까운 변동을 나타내는 인자를 추출하여, 순서적으로 추출된 인자에 의하여 최대한의 분자를 추출하는 방법으로 추출된 인자의 설명이 가능해진다.

여기에 추출된 인자를 축으로 해서 분석에 사용한 변수간의 상관행렬을 수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토록 회전시켜 보다 의미있는 인자를 추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인자분석에 의해 추출된 인자를 베리막스(Varimas) 법에 의해

회전시켜 인자를 추출한다.

2. 주생활 양식의 요인 분석

먼저 주생활 양식에 관한 조사를 위해 실내 분위기, 자기취향, 공간 기능성, 실용성, 과시성, 전통성등 6개의 개념들을 설정하고 각 개념들에 대해 23개의 지표를 설정하였다. <표 2>

분석은 각 지표에 대해 '그렇다', '어느쪽도 아니다', '아니다'등 3단계 평가를 행하였으며, 여기에서는 총 18개의 항목에대해 얻어진 해답을 득점화하여 인자분석을 행한 결과 6개의 인자를 추출하였다. <표 3>

먼저 제1인자는 '실내장식에 관심이 많다', '실내분위기를 자주 바꾼다', '어항, 화분등으로 실내분위기를 창출한다', 등의 항목에 인자 부하량이 큰 것으로 이는 「장식성」에 관한 사항을 나타내는 인자로 볼 수 있다.

제2인자는 '가구, 가전제품 등의 구입시 유명메이커의 제품을 고른다', '냉장고,세탁기등은 되도록 초대형으로 준비한다', 등의 항목에 인자부하량이 크므로 「과시성」을 나타내는 인자로 볼 수 있다.

제3인자는 '벽지는 재질보다 문양이나 색채를 중시한다', '식탁보나 소파의 커버를 자주 바꾼다', '침대는 기능보다 자기취향에 맞게 선택한다', 등의 항목에 인자부하량이 크므로 「자기취향」을 나타내는 인자로 볼 수 있다.

또한 제4인자는 '육실자재는 미적인것보다 위생적이고 실용적이어야한다', '가구는 디자인보다 견고라고 실용적인 것을 선택한다' 등의 주로 「실용성」을 나타내는 인자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제5인자는 '주택의 규모는 가족수에 관계없이 되도록 큰 규모를 선택한다', '주택은 거주 목적이라기보다는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생각한다' 등이 인자부하량이 크므로 이는 「재산증식」을 나타내고 있다.

제6인자는 '거실과 소파이용시 어른순으로 좌석이 정해져있다', '식탁이용시 어른순으로 좌석이 정해져있다' 등의 항목에 인자부하량이 크므로 이는 「위계질서」를 나타내는 인자로 볼 수 있다.

3. 거주자 속성별 주생활 양식

1) 개인 속성

앞서 얻어진 6개의 인자에 대해 각 속성별 평균 득점에 대해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가) 세대수입

세대수입(표 4)에 있어서는 수입이 500~1000만원인 경우 6개의 인자모두가 인자평균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제4인자인 「실용성」에 대한 인자평균이 2.84로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4000만원 이하의 수입을 가진 세대는 제4인자인 「실용성」에 대한 평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수입이 4000만원이상인 경우에 제1인자(장식성)과 제2인자(과시성), 그리고 제5인자(재산증식)의 평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4> 세대수입과 인자평균

주생활 양식 수입	제1 인자	제2 인자	제3 인자	제4 인자	제5 인자	제6 인자
500만원이하	2.09	2.72	1.81	2.75	1.96	1.81
500-1000만원	2.03	2.33	1.75	2.75	2.12	1.62
1000-1500만원	1.91	2.36	2.07	2.84	2.09	1.92
1500-2000만원	2.03	2.34	2.02	2.63	2.15	2.14
2000-3000만원	2.01	2.44	1.95	2.69	2.15	1.98
3000-4000만원	2.15	2.69	2.11	2.74	2.19	2.04
4000-5000만원	2.50	2.25	2.33	2.33	2.50	2.25
5000만원이상	1.66	2.44	1.77	1.77	2.22	1.66

나) 세대주 학력

세대주 학력에 있어서는 중,고등학교 졸업자가 6개의 인자중 제4인자인 「실용성」에 대한 평균이 모두 높게 나타나며, 특히 중학교졸업자가 2.91로 가장 높은 평균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대학원졸업자는 제2인자인 「과시성」에 대한 평균이 2.22로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저학력층으로 갈수록 「실용성」에 대한 관심이 많고 고학력층으로 갈수록 「과시성」이나 「재산증식」에 관심이 많음을 알 수 있다.<표 5>

〈표 2〉 주생활 양식 지표설정

개 념	지 표 내 용
실내 분위기	1. 실내분위기를 자주 바꾼다.
	2. 실내장식에 관심이 많다.
	3. 조명기구를 자주 바꾼다.
	4. 어항, 화분등으로 실내분위기를 창출한다.
자기 취향	5. 가구는 기능보다 색채나 디자인을 더 중시한다.
	6. 침대는 기능보다 자기취향에 맞게 선택한다.
	7. 벽지는 재질보다 문양이나 색채를 중시한다.
	8. 식탁보나 소파의 커버를 자주 바꾼다.
공간 기능성	9. 부부침실은 프라이버시를 위해 다른 침실과 격리 시킨다.
	10. 홀이나 거실로부터 각실과의 연결이 좋아야한다.
	11. 독립된서재나 취미실이 있어야한다.
	12. 수납을 위한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한다.
실용성	13. 커튼은 장식이라기보다 실용적인 것을 선택한다.
	14. 가구는 디자인보다 견고하고 실용적인 것을 선택한다.
	15. 전기제품등은 전기료, 유지관리비가 적게 드는 것을 고른다.
	16. 욕실자재는 미적인것보다 위생적이고 실용적이어야한다.
	17. 부엌의 조리대는 색상, 디자인보다 기능이 우수한 것을 고른다.
과시성	18. 가구, 가전제품 등의 구입시 유명메이커 제품을 고른다.
	19. 주택의 규모는 가족수에 관계없이 되도록 큰 규모를 선택한다.
	20. 냉장고, 세탁기등은 되도록 초대형으로 준비한다.
	21. 주택거주의 목적이라기보다 재산증식의 수단으로생각한다.
전통성	22. 식탁이용시 어른순으로 좌석이 정해져 있다.
	23. 거실의 소파이용시 어른순으로 좌석이 정해져 있다.

<표 3> 주생활 양식 인자 추출

평가항목	제1인자 (장식성)	제2인자 (과시성)	제3인자 (자기취향)	제4인자 (실용성)	제5인자 (재산증식)	제6인자 (위계질서)
실내장식에 관심이 많다	.79845	.02593	.07099	0.02426	-.02515	-.01871
실내분위기를 자주 바꾼다	.75611	-.06330	.16596	.05767	-.07655	.03610
어항, 화분등으로 실내분위기를 창출한다.	.72432	.05815	.05282	-.04894	-.06803	.04705
가구는 기능보다 색채나 디자인을 더 중시한다.	.40220	-.04731	.35787	-.22324	.20921	.08493
기구, 가전제품 등의 구입시 유명메이커의 제품을 고른다.	.04798	.75218	.10426	.06369	.10201	-.09721
냉장고, 세탁기등은 되도록 초대형으로 준비한다	-.10975	.68432	-.03789	-.00957	.42044	-.10846
홀이나 거실로부터 각실과 연결이 좋아야한다.	.07081	.60871	-.02800	.26768	-.17025	-.04248
벽지는 재질보다 문양이 색채를 중시한다.	.06065	.00250	.77774	-.02330	.14527	-.04178
식탁보나 소파의 커버를 자주 바꾼다.	.21341	.19417	.68847	-.07192	.00223	.09459
침대는 기능보다 자기취향에 맞게 선택한다.	.13525	-.21833	.50609	.22982	.12563	.00369
욕실자재는 미적인것보다 위생적이고 실용적이어야한다.	-.01684	.19738	-.02508	.79208	.09402	.02453
부엌의 조리되는 색상, 디자인보다 기능이 우수한 것을 고른다.	.01711	.06751	-.02684	.77220	.03555	.08664
가구는 디자인보다 견고하고 실용적인 것을 선택한다.	-.09480	-.14306	.00370	.57088	-.12803	-.07688
주택의 규모는 가족수에 관계없이 되도록 대규모를 선택한다.	.05813	.30664	.13848	-.02082	.73893	.03572
주택은 거주 목적이라기보다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생각한다.	-.13263	.00229	.19530	.08761	.73334	.06043
수납을위한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한다.	.02302	.43985	.19446	-.04269	-.56807	.16262
거실의 소파이용시 어른순으로 좌석이 정해져있다.	.08019	-.08421	-.04395	.02129	.17311	.86735
식탁이용시 어른 순으로 좌석이 정해져 있다.	-.01240	-.07398	.07640	.06153	-.13233	.83561
고 유 치	3.07207	2.40322	2.28180	1.75656	1.51624	1.17747
기 여 율	13.4	10.4	9.9	7.6	6.6	5.1
누 적 기 여 율	13.4	23.8	33.7	41.4	48.0	53.1

<표 5> 세대주의 학력

주생활양식 학력	제1 인자	제2 인자	제3 인자	제4 인자	제5 인자	제6 인자
중학교졸업	1.87	2.58	1.79	2.91	1.79	1.81
고등학교졸업	1.96	2.35	1.98	2.77	2.09	2.02
대학교(초대)졸업	2.15	2.51	2.04	2.52	2.19	2.00
대학원졸업	2.22	2.84	2.21	2.48	2.42	1.90

다) 세대주 연령

세대주의 연령<표 6>에서는 연령에 관계 없이 제4인자인 「실용성」에 대한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29세미만의 연령층에서는 제1인자인 「장식성」에 대한 평균이 비교적 높으며, 50대의 연령층에서는 제2인자인 「과시성」과 제5인자인 「재산증식」에 대한 평균이 높은 것으로 보아, 저연령층의 경우는 「장식성」에 관심이 많고,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과시성」이나 「재산증식」에 관심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6> 세대주의 연령

주생활양식 연령	제1 인자	제2 인자	제3 인자	제4 인자	제5 인자	제6 인자
29세미만	2.15	2.33	2.17	2.48	2.20	1.88
30-39세	2.08	2.45	1.98	2.63	2.08	2.01
40-49세	1.91	2.42	1.92	2.75	2.06	2.01
50-59세	1.91	2.33	1.77	2.61	2.27	1.91
60-69세	1.87	2.00	2.00	3.00	1.83	1.75
70세이상	1.98	2.48	2.20	2.81	2.37	2.00

2) 거주속성

가) 주택 소유 관계

주택 소유 관계에 있어서는 자기집인 경우, 제4인자인 「실용성」에 대한 평균이 가장 크게 나타나며, 셋방의 경우, 제5인자인 「재산증식」의 평균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표 7> 그리고 사택의 경우, 제3인자(과시성)에 대한 평균값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7> 주택소유관계

구분	제1 인자	제2 인자	제3 인자	제4 인자	제5 인자	제6 인자
자기집	2.04	2.36	1.96	2.68	2.10	2.06
전세	2.03	2.58	2.15	2.66	2.20	1.91
셋방 임대	1.91	2.55	2.33	2.33	2.55	1.83
사택	2.25	3.00	2.66	2.50	2.00	2.00
기타	2.25	2.00	2.33	3.00	1.66	1.00

나) 이사회수

이사회수를 <표 8>에서 살펴보면, 이사를 한 번도 하지않은 경우 제4인자인 「실용성」에 대한 평균이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사를 한 번이상 한 경우에도 제4인자인 「실용성」에 대한 평균이 비교적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8> 이사회수

구분	제1 인자	제2 인자	제3 인자	제4 인자	제5 인자	제6 인자
움긴적	2.10	2.44	2.22	2.72	2.24	2.17
1회	2.01	2.37	1.94	2.80	2.13	2.02
2회	2.01	2.45	2.08	2.53	2.16	1.97
3회	2.15	2.43	1.89	2.71	2.03	1.92
4회	2.03	2.53	1.98	2.75	2.18	1.87
5회이상	1.90	2.39	1.90	2.61	2.05	2.00

다) 입주전 거주 형식

입주전 거주형식과 주생활 양식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표 9>에서와 같이 전체적으로 2층 양육 거주자가 제4인자인 「실용성」에 대한 인자평균이 2.79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모든 주거유형에서 제4인자의 인자평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고층아파트의 경우 제2인자인 「과시성」에 대한 인자평균이 2.68로 다른 주거유형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고, 「자기취향」과 「장식성」에 대한 인자평균도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단독주택과 저층아파트의 경우는 제4인자인 「실용성」과 제5인자인 「재산증식」에 대한 인자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표 9〉 입주전 거주 형식

주생활양식 거주형식	제1 인자	제2 인자	제3 인자	제4 인자	제5 인자	제6 인자
한옥	2.00	2.47	1.85	2.73	2.13	1.63
양옥(1층)	2.03	2.23	2.07	2.75	2.08	2.19
양옥(2층)	2.05	2.47	2.10	2.79	2.26	2.16
아파트.맨션 (5층 이하)	2.01	2.45	1.91	2.61	2.10	2.00
아파트.맨션 (6층 이상)	2.22	2.68	2.36	2.53	2.37	1.80
다세대 주택	1.75	2.45	1.71	2.75	1.91	1.87
다가구 주택	2.28	2.47	2.23	2.52	2.04	1.92
기타()	2.05	2.26	2.20	2.86	1.93	2.40

3) 거주 의향

가) 정주 의향

주생활 양식과 정주 의향과의 관계를 〈표 10〉에서 살펴보면, 현주택에 계속거주를 원하는 '정주파'는 제2인자인 「과시성」과 제4인자인 「실용성」에 대한 평균값이 각각 2.44과 2.66로 다른 인자에 비해 다소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집을 옮겼으면 하는 '이주파'의 경우에는 제2인자와 제4인자의 평균값이 다소 높음을 알 수 있다. 이것으로보아 정주파나 이주파는 모두 주생활 양식의 「과시성」과 「실용성」에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거주지 선택

주생활 양식과 거주지 선택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표 11〉에서와 같이 '다른 대도시'에 살기를 희망하는 세대는 제1인자인 「장식성」과 제2인자인 「과시성」에 대해 높은

〈표 10〉 정주 의향

구분	제1 인자	제2 인자	제3 인자	제4 인자	제5 인자	제6 인자
정주파	1.97	2.44	2.03	2.66	2.17	1.92
이주파	2.44	2.77	2.00	2.69	2.10	2.03

인자평균을 나타내며, 대부분 제4인자인 「실용성」에 대해 높은 인자평균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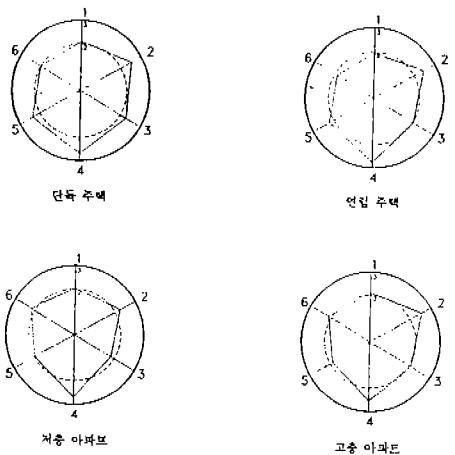
그리고, 농촌, 어촌에 거주를 희망한 세대는 제6인자인 「위계 질서」에 대해 높은 인자평균을 나타냈다. 또 다른 대도시에 거주지를 선택하기를 희망한 세대는 제5인자인 「재산증식」에 높은 인자평균을 나타냈다.

〈표 11〉 거주지 선택

구분	제1	제2	제3	제4	제5	제6
이도시의	1.96	2.43	1.81	2.75	1.99	1.77
이도시의 변두리	2.02	2.32	2.07	2.73	2.11	2.14
다른 대도시	2.12	2.55	2.05	2.61	2.24	1.94
다른	1.87	2.55	1.97	2.66	1.97	1.91
농촌,어촌	1.75	2.03	2.00	2.60	2.06	2.25

4. 주거 유형별 주생활 양식

주거 유형별로 본 주생활 양식은 앞서 추출한 6개의 인자에 대해 인자특성을 산출하고 각 주거 유형별 평균을 구하였다. 이들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 (그림 1)이다.



- 1. 제1인자
- 2. 제2인자
- 3. 제3인자
- 4. 제4인자
- 5. 제5인자
- 6. 제6인자

(그림 1) 유형별 인자 평균

전체적으로 모든 주거유형에서 제2인자인 「과시성」과 제4인자인 「실용성」의 평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주거 유형별로 살펴보면, 단독주택의 경우, 6개의 인자 중에서 제2인자인 「과시성」과 제4인자인 「실용성」에 대한 평균치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 다른 주거유형에 비해 제3인자인 「자기취향」과 제5인자인 「재산증식」에 대한 평균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연립 주택의 경우는 제4인자인 「실용성」에 대한 평균치가 2.7561로 다른 주거 유형에 비해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고, 반면에 제1인자인 「장식성」에 대한 평균치는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저층아파트의 경우는 연립 주택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제6인자인 「위계 질서」에 대한 평균치가 다른 주거 유형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고층아파트의 경우는 제1인자인 「장식성」과 제2인자인 「과시성」에 대한 평균치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제4인자인 「실용성」에 대한 평균치는 높으나, 다른 주거 유형에 비하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고층아파트의 거주자들은 주로 고소득층이므로 「장식성」과 「과시성」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단독주택은 「자기취향」에 관심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연립주택과 저층아파트의 거주자들은 주로 저소득층이므로 「실용성」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 론

본 연구는 현대 주거 생활에서 나타나는 주생활 양식을 거주자 속성 및 주거 유형별로 분석하여 미래 주택 계획에 있어서 기초적 자료를 제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거주자의 주생활 양식에 따른 실태를 파악하고 주거 유형별 주생활 양식을 분석하여 거주자 속성 및 주거 유형별로 내재

된 주생활 양식의 인자를 규명하였다.

이상의 분석에서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거주자 속성별 주생활 양식은 개인 속성에 있어서는 저학력, 저소득층, 고연령층의 경우 「실용성」에 관심이 많은 반면, 고학력, 고소득, 저연령층은 「과시성」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거주 속성에 있어서는 자기집을 소유하며, 이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경우 「실용성」에 관심이 많은 반면, 입주전 거주 형식에서는 모든 주거 유형에서 「실용성」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거주 의향에 있어서는 정주파와 이주파 모두 「과시성」과 「실용성」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대도시에 거주지를 선택하기로 희망한 세대는 「재산증식」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주거 유형별 주생활 양식에 있어서는 「장식성」, 「과시성」, 「자기취향」, 「실용성」, 「재산증식」, 「위계질서」의 6개의 인자추출이 가능하였으며, 주거유형별로 보면, 연립 주택과 저층아파트의 경우는 「실용성」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반면, 고층아파트는 「과시성」에, 단독주택은 「자기취향」이나 「재산증식」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와 같이 주생활 양식은 거주자의 속성 및 주거 유형별 그 평가 구조를 달리 하고 있다. 따라서 거주자에게 적합한 주거 건축을 위해서는 거주자 속성 및 주거 유형별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 내재된 주생활 양식의 요인을 검토하여 주거 계획에 적용함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주거 문화 창출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본 연구는 주거 환경 창출을 위한 제1단계 연구로써今回は 공업도시인 구미시 신시가지 주택지를 대상으로 한 지역적인 연구에 머물고 있으나, 보다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평가지표에 의한 종합적인 연구는 금후의 과제로 남겨 둔다.

참 고 문 헌

1. 고경필, "주거 가치와 주생활 양식에 따른 주택 구매 행동 분석." 한국주거학회지, 제 5권, 1994.12.
2. 구미시 통계연보, 1993.
3. 김미희, "대도시 아파트 거주자의 주생활 양식."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1.
4. 김익환, "거주지 유형별로 본 거주 환경 평가에 관한 연구." 금오공과대학교 논문집 제 11집, 1990.
5. 김진균외, "주거학" 서울대학 출판부, 1984.
6. 박영순 외, "의류 점포 애고 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 가정 학회지, 32(4), 1994.
7. 신경주, "주거학". 수학사, 1992.
8. 신영숙, "도시 중산층 아파트 가구의 생활 양식과 실내 의장 태도 유형 연구"한국 주거 학회지, 2(2), 1991.
9. 윤복자 외, "기초 주거학", 신광출판사, 1992.
10. 윤장섭, "주거학", 교문사, 1986.
11. 윤충렬 외, "주택계획론" 산업 도서, 1994.
12. 이종우, "도시 단독 주택의 공간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13. 전경배 외, "주택계획론", 산업도서, 1994.
14. 최목화, "현대 도시의 주거 생활 양식 유형 분류에 관한 연구" 한국 주거학회지, 2(1), 1991.
15. 한운길, "대구 도심지역 거주자의 거주 환경 평가에 관한 연구." 금오공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3.
16. 홍두승외, "도시 중산층의 생활 양식-주거 생활을 중심으로." 성곡논총, 19, 1988.
17. 西山卯三, 住空間の型, 新建築, 1959.
18. 西山卯三, 住宅計劃論, 경초서방, 1968.
19. 鈴木成文, 順應型 住宅の研究Ⅱ, 住宅研究所報, 新住宅普及會:25-39, 1975.
20. Barker, R. (1968). Ecological Psychology. Palo Alto,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